

독일 베를린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어느 해보다 기온도 낮고 눈도 많이 왔었는데 이르게 찾아온 봄은 너무도 따뜻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요즘이지만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간섭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그동안 진행할 수 없었던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비자는 제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비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몇 달간의 실제 비용들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1900 유로가 세금과 연금과 보험등으로 지출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라 지속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유럽과 베를린의 사역이 더 활발해지길 소망합니다. 큰아이 하연이는 5학기를 작은아이 예솔이는 1학기를 시작하며 각자의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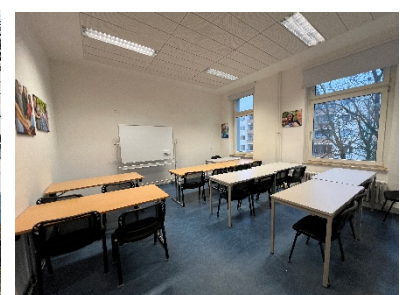
베를린 주안교회에서 비전교회로

지난해 시작된 청소년 예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지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하던 중 이웃교회인 비전교회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색한 가족들이 좀더 유연하게 참석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저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부분에서 협력과 동역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주안공동체와 비전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연합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녀들과 그의 부모들 유학생과 젊은 가정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다음세대와 복음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임이쉬 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준비하던 이전과 이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용하던 장소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좁고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초등학교(Ruppin-Grundschule)에 교실 2개를 매주3일(월,수,목)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물(Pangea Haus e.V.)의 사무실1개와 교실2개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역은 한인과 한인2세 위주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지역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사역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판게아하우스를 통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민자들과의 만남과 협력을 통해 복음사역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 문화센터가 주관해 양민호선교사를 초청해 베를린과 함부르크,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찬양집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민교회에 찾아가는 찬양집회는 개인들에게와 여러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 11월에 신학세미나를 12월에는 작가와의 대화를 주관하여 진행했습니다.

도담도담한글학교

지난해 10월에는 도담도담한글학교 10주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총영사님과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한글학교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역과 한인사회를 위해 어떻게 자리잡아야 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새롭게 7명을 더 충원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 교사들을 양성하는 부분도 애쓰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사연수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족했던 공간을 더 확보하고 교사도 충원하면서 기도하던 부분이 지역적 한계를 좀더 넓히기 위해 각 지역의 초등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협력관계로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한글수업을 넣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글학교의 활동이 확장되어지면서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서의 법인이며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학교로서 독일의 법안에서도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가족분들이 없으시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부모와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떡국과 전과 같은 명절음식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원가족일 수 밖에 없는 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서로 왕래하며 베를린 할머니 베를린 할아버지로 불리고 베를린 손자들이라고 하며 이민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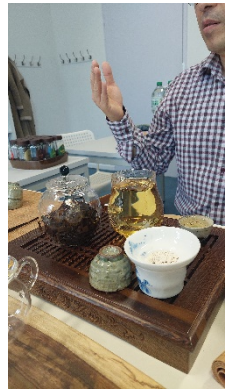
청소년모임

매일 진행하는 청소년모임에 아이들이 조금씩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이민자이며 이방인의 삶은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갖게 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서로 모이면 위로가 되고 멘토와 멘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베를린 투어, 스케이트장 모임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청소년 모임 아이들이 주가되는 2박3일 수련회를 베를린 인근 교회 목사관에서 진행했습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기도와 말씀이 가득한 첫 수련회를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차모임 '찾자리'

베를린의 젊은 세대를 만나기 위해 마련되는 찾자리는 다문화 사회속에 문화적 접점으로 매우 중요하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확장되고 장소가 협소해짐으로 센터이전까지 잠시 멈춰져있던 모임이 3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만나며 삶을 나누는 자리로 베를린에서도 이제 조금씩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헤이그, 뮌헨, 불가리아 소피아등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강의와 시연 모임등으로 찾자리를 통한 관계형성의 가능성들을 알리게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차를 통한 건강을 위한 자리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자리를 마련한 센터를 통해 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원봉사 모임

저는 지난해 부터 시작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교육과 실습은 호스피스 환자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노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호스피스등 독일내의 공식적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활동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역자 스스로의 성장도 그 목적이 있지만 그간 관계를 맺어온 학부모들과 젊은세대 다문화세대, 음악과 미술등 문화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협력하여 베를린과 유럽의 여러 부분에 자원봉사로 섬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전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봄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 창문을 닦아드리는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변경

그동안 사용해왔던 후원계좌를 GMS계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나은행 920-982398-818 정승안 , GMS 선교사 가상계좌

베를린에 세워진 비전교회와 하임이쉬 문화공동체, 그리고 선교사로 이곳에 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 비전교회가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비자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 한글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회복 되어지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 이전하는 센터에 책상과 의자 프린트등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1500 유로-250만원정도)
- 문화사역을 통해 만나지는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를 누리며 육과 영이 강건하여지도록
- 주변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회복되도록
-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지치지 않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산업위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힘이 한국과 세계를 연결시켜줄 다음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승안, 하춘희, 정하연, 정예솔 선교사 올림

베를린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집: Blissestrasse 58, 10713 Berlin, Deutschland 이메일 : uranus1479@gmail.com

전화 : 49-30-8550-6368, 휴대폰 : 0176-6318-9090 카톡ID : JungSeungAn

GMS선교사 후원계좌 : 920-982398-818 하나은행, 정승안

독일계좌 : DE91100100100023004113 , Seung An, Jung, Postbank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 : 1 - 3

